

대한민국 최초 · 최고의 건축전문 전시회 ‘한국건축산업대전 2008’ 성료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경제TV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지난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개최된 ‘한국건축산업대전 2008’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이하 KAFF 2008)이 한층 성장한 모습과 결과를 보이며 성료됐다.

‘건축, 삶의 터를 디자인하다’란 주제로 개최된 KAFF 2008은 총 3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으며, 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하여 건축자재, 설비, 인테리어, 컴퓨터소프트웨어, 관공서, 인쇄 출판 등의 업체가 참여하여 명실상부 종합건축전시회로 자리매김하는 행사가 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친환경, 신생 에너지, 신자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련 기업 홍보관에 연일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중



1. 한국건축산업대전2008 개막과 테이프커팅
3. 한국건축산업대전2008 전시장 전경
5. 대전 기간 중에 열린 '건축사연수교육' 강의 장면

2. 한국건축산업대전2008 신포식 장면
4. 대전 참가업체 홍보관을 둘러보는 관람객들
6. 대전 기간 중에 '열린 회원인증 및 교육규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이건축모형', '내가 만드는 DIY 체험장'을 통해 볼거리와 체험의 장 마련, 전시회에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활기를 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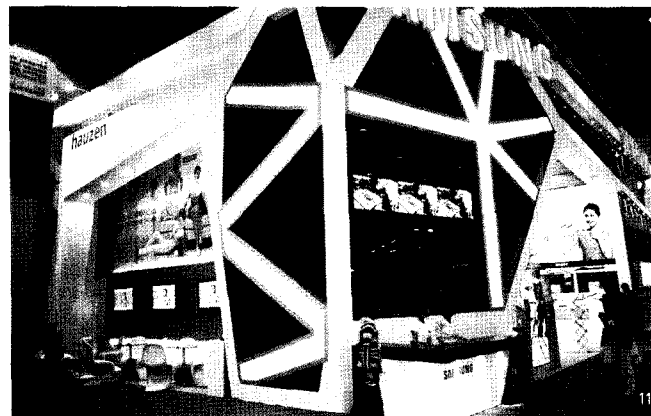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상당수의 건축사사무소가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사 홍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특히, 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관람객에게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시켜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KAFF 2008의 동시행사로 진행된 '건축사연수교육'은 「건축법령 민원사례」, 「교통약자 편의증진」, 「건축설계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시스템」, 「건축설계기법」, 「지속가능한 건축은 왜 필요한가」등의 주제로 열렸으며 지난해에 비해 내용적인 측면이나 건축사 참여율에서도 성공적

이었다.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하반기 부동산 투자전략 무료 설명회'에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진 주부들과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1일에 열린 일반강좌 '류춘수의 건축이야기'에는 건축 관련 인사와 대학생들이 일찍 자리를 메웠으며, 강의 시간 내내 류춘수 건축사(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의 강의와 그의 작품세계에 매료되기도 했다.

KAFF 2008은 올해로 3회째 개최한 행사로서 매년 우수기업 참가와 알찬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꾸준히 참여업체와 관람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내년에 열릴 행사도 올해 못지않게 발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전문 전시회로 자리 잡을 것이다.



7. 한국건축산업대전과 동시행사로 열린 '전국건축사미술전'
9. '류춘수의 건축이야기'란 제목으로 강연하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 류춘수 부회장
11.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시스템을 소개한 '삼성전자' 홍보관 전경

8. 종이모형 체험을 하고 있는 건축사 관람객
10. 대전기간 중 큰 호응을 일으킨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Wow-TV 홍보관
12. 행복도시 '세종'의 홍보관 전경